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2020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15선

2020. 12.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2020 특허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15선

CONTENTS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01

• 논문이나 연구노트 그 자체를 특허출원서로 인정
특허심사제도와, 정보시스템과

4

02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정보고객정책과

6

03

• 중소기업의 특허조사·분석비용에 25% 세액공제 도입
산업재산정책과

8

04

•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산업재산보호정책과

10

05

• 모바일·비대면 특허행정 업무체계 구축
정보시스템과

12

06	● 융·복합기술에 대한 3인 협의심사 실시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14
07	●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구축 특허심사제도과	16
08	●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 산업재산창출전략팀	18
09	● 맞춤형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일괄심사제도 개선 특허심사제도과	20
10	● 디자인 일부심사 품목 확대 디자인심사정책과	22
11	● 신청, 증빙서류 없이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 출원과	24
12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확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	26
13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정보고객정책과	28
14	●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방 정보관리과	30
15	● 글자체 디자인 도면 간소화로 출원의 편의성 증진 디자인심사정책과	32

논문이나 연구노트 그 자체를 특허출원서로 인정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심사제도와, 정보시스템과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제출하는 기술 설명자료를
그대로 특허로 출원하고 싶습니다.
특허청에서 규정한 명세서 형식으로 다시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습니다.
경쟁사보다 빠르게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특허청에서는 올해부터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시명세서는 특허청이 규정하고 있는 특허출원서와
다른 형태의 서류라도 특허를 받으려는 기술에 대한 내용만 있다면
특허출원일을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유한 기술 설명자료를 그대로 특허청에 제출하여도
특허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후 1년 2개월 내에
특허청이 규정하는 형식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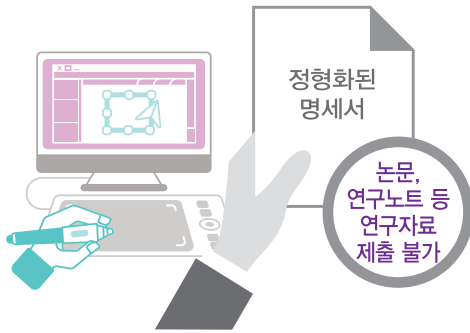
특허출원 시 정형화된 형식으로 발명의 설명서(명세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논문 등 연구결과를 요건에 맞춰 다시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려움

관련규정

특허법 · 실용신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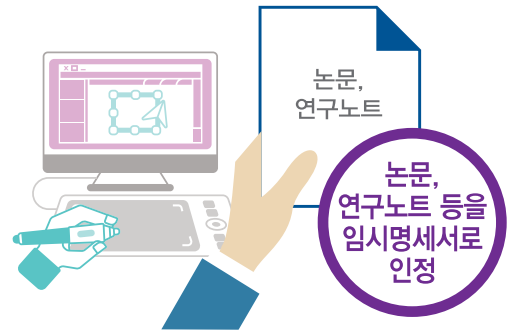
개선 내용

개선 전



- 전세계 특허청 간의 표준형식을 따르기 위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규정된 요건 (7개)을 준수한 명세서를 필수 제출

개선 후



- 형식을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명세서 제출 가능
- 논문, 연구노트, 기술서 등 연구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제출 가능하고, 국제표준 형식은 1년 2개월 내에 보완

성과 및 기대효과

- 워크스루 발명의 임시명세서 출원 등 기술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여 월평균 360건이 임시명세서로 출원 중이며, 미국 제도* 대체로 출원인의 비용 부담 완화

* 미국의 유사한 가출원제도 비용의 1/6에 불과, 연간 3억원 가량의 외화 절감 기대

- 국내 대기업 A사는 국제적으로 특허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의 가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왔다. 미국에 먼저 특허를 출원한 후, 이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내에 특허출원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 이후에는 미국 가출원 수수료의 1/6로 국내에 신속하게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형 워크스루 기술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라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특허 출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하여 빠르게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정보고객정책과



저희는 대구에 소재한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품 생산이나
납품에도 차질에 생겨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출원이나 유지를 위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30% 감면혜택을 받아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더욱 신속하게 출원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의 특허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수수료 감면을 위한 「특허료 등 징수규칙」 개정에는 시간(약 6개월)이 필요하여 적시 감면 곤란

관련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선 내용

개선 전



-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특허료 등 징수규칙」 개정이 필요하나, 규정 개정에는 약 6개월 소요 되어 신속한 대처가 어려움

개선 후



- 재난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 수수료 감면 가능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선제적 감면을 실시하고 이후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20.3)

성과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특허출원이 수수료 감면 시행 후 완만히 회복
– 적기에 감면을 시행하여 대구·경북지역 출원인에게 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약 63억원)
- 향후 재난 등 발생으로 특허수수료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없이 감면 가능

대구 북구에 소재한 소규모 전자부품 생산업체 A사는 '20.4월경 특허 1건에 대한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70%) 외에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감면(30%)을 중복적용 받아 9만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특허조사·분석비용에 25% 세액공제 도입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산업재산정책과



우리 회사 제품이
국내외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특허 조사 · 분석에 드는 비용이 부담됩니다.
해결방법이 없나요?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전문기관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조사·분석 비용이
R&D세액공제(25%) 대상에 포함되어
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현재 1개만 운영 중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100여개로 확대하여
기업이 보다 쉽게 특허 조사·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R&D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술에 대한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큰 비용 부담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선 내용

개선 전



-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부재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1개소만 지정 운영

개선 후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세액공제(25%) 대상에 포함
- 특허청에서 지정·관리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100여개로 확대

성과 및 기대효과

- 매년 중소기업에 60여억원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부담 완화 기대
- 특허청에서 지정·관리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확대로 고품질 특허조사·분석 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

중소기업 A사는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한 25% 세액공제 도입으로 비용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 추진 전 특허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 특허현황을 파악하고 제품을 개발하여 경쟁사 B사의 특허장벽을 회피할 수 있었다.

또한, 특허소송 대응전략을 미리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특허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제가 밤낮없이 열심히 개발한 특허기술을 등록받아,
그 기술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이 유명해지니까,
대기업에서 저의 특허를 베껴서 똑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12월부터 개정된 특허법 시행으로,
이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해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한 제품 모두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율(약 10% 수준)을 합산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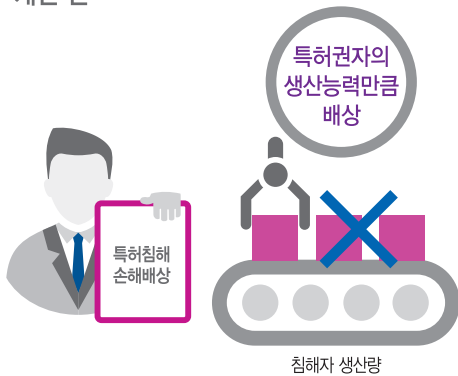
생산능력이 월등한 침해자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이익이 남아 침해가 이득이 되는 불합리 발생

관련규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선 내용

개선 전



- 특허침해시 손해배상액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이내로 제한되어, 생산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게 불리

개선 후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제품 판매액에 대해서도 적절한 실시료를 손해배상액 산정시 포함

성과 및 기대효과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으로 제한받던 손해배상 범위를 생산능력 초과분까지 확대하여 특허권이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발명의욕 고취 및 기술혁신 가속화 기대

중소기업 A사 사장이 발명한 특허 기술제품이 TV 출연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B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허침해를 당한 A사는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법 개정 전에는 A사의 생산능력이 100개이고 제품 1개당 이익액이 10만원인 경우, B사가 판매한 제품 수량이 10,000개일 때, B사는 A사에게 1,000만원만 배상했었습니다.

이제 특허법이 개정되고 나서, B사는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한 수량 9,900개에 대해서 합리적인 실시료에 해당하는 개당 1만원의 손해배상액을 합산한 총 1억9백만원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비대면 특허행정 업무체계 구축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정보시스템과



부산에서 베이커리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인데,
가게 이름을 상표 출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도 따로 없고,
특허청은 대전에 있어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출원을 할 수 있나요?



특허청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세계 최초로 모바일 상표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특허로에서는
상표 출원부터 통지서 수신, 수수료 납부, 등록증 발급까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특허출원서 제출, 수수료 납부 등 특허행정 절차는 서면 또는 PC만으로 이용 가능하여 출원인의 신속한 절차진행 곤란

코로나19로 인해 고객과 대면으로 진행하던 업무를 신속하게 비대면으로 전환할 필요

개선 내용

개선 전



- 출원, 수수료 납부 등 절차는 서면 또는 PC로만 처리 가능
- 인증서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효력 기준이 없어 위임장, 공증서 원본 서면만을 인정
- 일과시간 이후에는 당직실을 통한 서면 서류 제출

개선 후



- 세계 최초로 모바일 상표출원 시스템 구축 등 모바일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
- 전자서명으로 작성된 서류에 대한 효력 인정
-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 운영

성과 및 기대효과

-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여 비대면 업무 여건을 조성
-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통해 특허행정에 대한 출원인 접근성 제고 및 비대면 업무처리 여건 강화

대학생 A씨는 렌즈 케이스 사업에 쓸 브랜드 명칭을 정하고 상표출원을 준비하던 중, 모바일 상표출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바일 상표출원 서비스 당일 직접 모바일로 출원하여 5분만에 모든 출원 절차를 마쳤다. 생각했던 것보다 쉽고 빠르게 출원할 수 있어 창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를 전했다.

융·복합기술에 대한 3인 협의 심사 실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저희는 인공지능에 기초하여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약품 기술을 결합하여
신약 제조에 효과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고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기술 분야가 전혀 다른데,
특허청 심사관이 잘 이해하고 심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융·복합화에 발맞추어,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하고 서로 다른 기술이 결합된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의심사는, 각 기술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심사관 3인이 모여서
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하여 심사하는 형태로,
지난 1년간 약 4천건에 이르는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하였습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이종(異種) 기술이 결합된 특허출원에 대한 전문적 심사가 어려움

개선 내용

개선 전



- 신기술의 결합과 상관없이, 특허출원 1건에 대하여 1명의 심사관이 전담하여 심사

개선 후



- 이종(異種) 기술이 결합된 경우 각 분야별 전문 심사관 3인이 협의하여 공동심사

성과 및 기대효과

- 신기술, 융합기술에 대해 전문심사관 3인 협의를 통한 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
 - 한국 공공정책평가협회 선정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대상 수상(2020. 11.)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RT-LAMP)은 출원 초기부터 특허심사관 3명의 협의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특허등록 결정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진단기술과 관련한 첫 특허등록 사례이다.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구축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심사제도과



마늘을 차로 끓여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SNS에서 봤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 믿을만한 정보인지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특허청에서는 약 8,700만건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홈페이지를
개통하였습니다.
특허정보 외에도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지원 시책들도 탑재되어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분야 기술영역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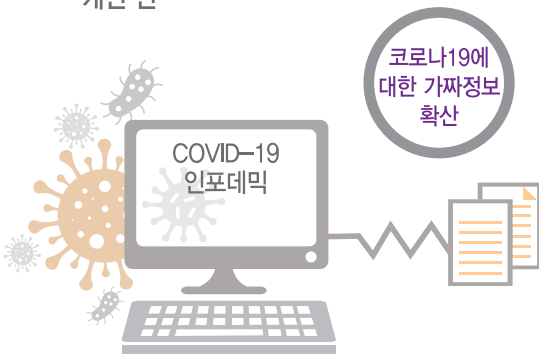
문 제 점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된 가짜정보인 인포데믹에 대한 일반국민의 피해 예방 필요

* 코로나19 관련 인포데믹으로 '메탄올을 섭취하면 코로나19 치료 가능', '치약으로 마스크를 세척할 수 있다' 등이 있었음

개선 내용

개선 전



-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관련 특허정보를 총망라한 플랫폼을 10일 이내에 구축, 개통하기로 목표 설정

개선 후



- 8,700만 건의 특허정보를 단기간에 분석하고 선별하기 위해, 별도 예산 투입 없이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인 특허청 심사관을 활용
- 코로나19 관련 특허정보, 최신 K-워크스루 및 진단 키트 기술정보, 관련 연구논문 데이터 등 탑재

성과 및 기대효과

- 미국·사우디 특허청에서 특허포털 구축 지원을 요청하고, 튀니지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표명하는 등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

호흡기내과 의사인 A씨는 코로나19 관련 특허 의약품, 검사키트 등 정보 외에도 감염병 관련 비특허정보, 코로나19 관련 일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코로나19 특허정보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내원하는 환자들의 진료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저희는 한국형 워크스루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에도 진출하기 위해
빠르게 국내외 특허를 받고 싶은데,
저희 회사는 영세하여 특허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혹시 지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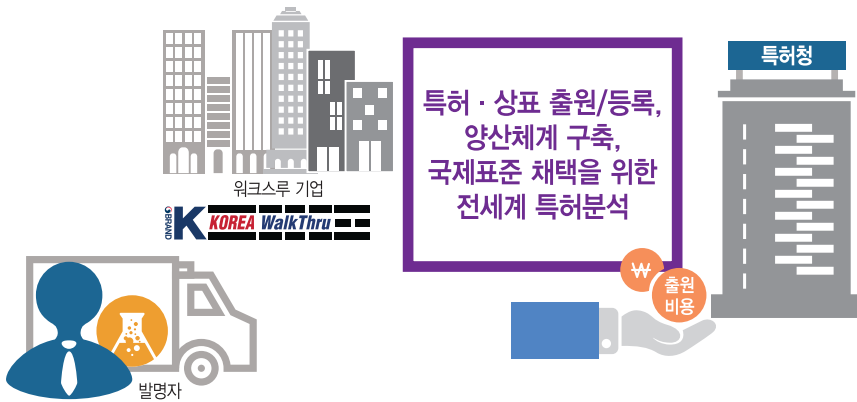
기술 개발 후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를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 명세서로 특허를 빠르게 출원하고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위치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IP 바로지원을 신청하면
즉시 상담·지원이 가능합니다.

과제 개요

필요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진단 및 의료진의 감염방지에 효과적인 K-워크스루를 특허·상표로 보호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

추진 내용



- 국내특허 41건 및 국제특허 1건 출원, 장비 생산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K-워크스루' 상표등록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생산능력이 부족한 K워크스루 기업이 제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을 발굴·연계
- K-워크스루의 국제표준 채택을 위한 전세계 특허분석

성과 및 기대효과

- 75개국에 워크스루 장비 152대를 신규 수출 및 개도국에 지원하고, 6개국에 노하우를 공유하여 전세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
 -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호평(2020. 6.)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창의적인 워크스루 기술을 개발한 A사는 특허를 출원하고 해외 수출을 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허청을 통해 특허출원 컨설팅, 양산기업 연계, 해외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A사는 특허청의 지원 이후 2건의 국내 특허와 1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하고 해외 수출에도 성공하였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일괄심사제도 개선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심사제도과



여러 가지 모델로 구성된 제품들을
시장에 출시하려는 중소기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상표·디자인 등을
한꺼번에 획득하고 싶어서
일괄심사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각 제품마다 따로 일괄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2020년 12월부터는
제품별로 따로 일괄심사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제품군이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군의 범위를 물품뿐 아니라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에 주목받는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비슷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마다 각각 일괄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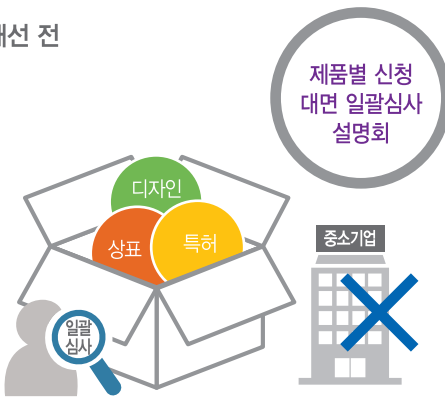
- 일괄심사 요건 설명을 위해 반드시 대면 일괄심사 설명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심사관과 출원인 모두에게 부담

관련규정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선 내용

개선 전



- 제품별로 일괄심사 신청
-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 없음
- 일괄심사 요건 설명을 위해 반드시 대면 일괄심사 설명회를 개최

개선 후



- 일괄심사 신청대상을 하나의 제품군으로 확대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출원을 일괄심사 신청 대상에 추가
- 일괄심사 설명회를 서면으로 대체 가능
(카탈로그, 사업설명서 등)

성과 및 기대효과

- 일괄심사 대상범위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로 디지털 융복합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형태 (플랫폼 서비스 등)를 준비 중인 기업의 이용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

스마트 기기를 생산하는 A사는 적용되는 기술이나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 고급형 제품과 중저가형 제품 라인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사업에 앞서 특허, 디자인, 상표권을 사업 개시 시점에 맞추어 미리 확보하고 싶지만, 이런 경우 각 제품별로 따로 일괄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2020년 12월부터는 여러 제품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관련 출원을 묶어 한꺼번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하기 위해 제품마다 특허청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디자인 일부심사 품목 확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디자인심사정책과



식품, 가방, 포장용기 및 보석·장신구 등의
물품은 유행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워서 신속하게
디자인권으로 등록받고 싶습니다.
일부심사를 통해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일부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12월부터
기존에 의류, 직물지 및 문구류에 속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일부심사제도가
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및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석·장신구류 등 확대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일부심사를 통해 10일 이내에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 : 디자인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들에
한하여 방식심사와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하여,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과제 개요

필요성

패션과 같이 제품주기가 짧고 유행이 빠른 산업분야에서는 신속한 디자인 권리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

관련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선 내용

개선 전



- 기존 제2, 5, 19류(의류, 직물지, 문구류)에 대해서만 일부심사제도 운영
- 평균 심사기간 60일

개선 후



- 기존 3개류 외 4개류를 추가하여 제1류, 3류, 9류, 11류(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보석·장신구류)에 대해서도 일부심사제도 확대 운영
- 심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

성과 및 기대효과

- 유행이 빠른 산업분야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 지원 및 기업 경쟁력 제고 기대

중소기업 A사는 새로 출시되는 귀걸이 제품에 대하여 마케팅 및 판매를 위해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디자인일부심사 품목에 보석·장신구류가 포함되지 않아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6~7개월이 소요되는 일반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부터 특허청에서 일부심사등록출원이 가능한 품목을 3개에서 7개로 확대함에 따라 보석·장신구류 등이 포함되었고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통해 10일 이내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확보하게 되어 A사의 마케팅 및 제품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증빙서류 없이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출원과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최근 개발한 새로운 섬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는데,
중견기업도 수수료가 감면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은 처음인데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중견기업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감면 신청이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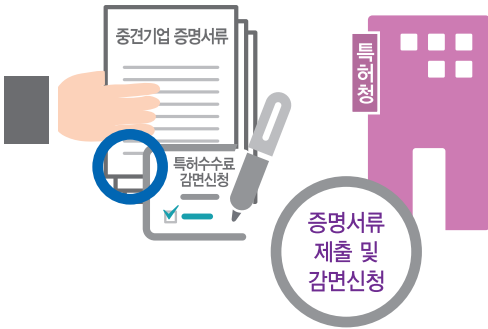
과제 개요

문 제 점

중견기업이 특허수수료 감면 대상인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는 경우 서류의 보정 절차 등으로 평균 2개월의 절차 지연이 발생

개선 내용

개선 전



- 출원서에 감면 취지를 기재하고 중견기업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 가능

개선 후



- 별도 감면 신청이나 증명서류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중견기업임을 확인하여 수수료 감면

성과 및 기대효과

-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평균 2개월)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감소로 우편발송 등 예산 절감

중견기업인 A사는 2020년 5월 특허를 출원하면서 감면제도를 알지 못해 특허 출원료 전액을 납부하였다. 며칠 후 A사는 특허청으로부터 중견기업임이 확인되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이 직권으로 감면하여 감면 후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A사는 앞으로 이 특허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때나 새로운 출원을 할 때 신청절차 없이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확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저희 회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화장품 용기를 개발하였는데,
이를 사용한 H제품을 출시하자마자 경쟁 업체에서
저희 H제품의 용기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디자인을 등록받지 못하였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2020년 8월 5일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기존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와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월 내에 절차가 종료되고 신청비용이 들지 않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부정경쟁행위, 경영상 영업비밀 등에 대한 조정 신청은 불가능하여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 가능

관련규정

발명진흥법

개선 내용

개선 전



-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대해서만 조정 가능

개선 후



- 부정경쟁행위 및 경영상 영업비밀까지 조정 가능

성과 및 기대효과

- 법률상 등록되지 않은 권리까지 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피해구제 실익 증가

배달대행업체 A사의 직원이 A사의 영업 데이터와 고객 명부를 가지고 퇴사한 후 경쟁사 B사에 입사하였다. B사는 A사의 고객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전에는 소송으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으나, 올해 8월부터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면서 3개월 안에 무사히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다.

※ 신청방법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온라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이메일 : ip.adr@korea.kr / 팩스 : 02-2183-5899 / 문의전화 : 1670-9779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정보고객정책과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자체 연구소가 없어 주로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보다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공동연구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앞으로는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에 대한
공동 출원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기업이 아닌 주체와의 공동연구 시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면대상 수수료는 설정등록료까지 확대되어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주체의 수수료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대기업 이외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에 걸림돌로 작용

관련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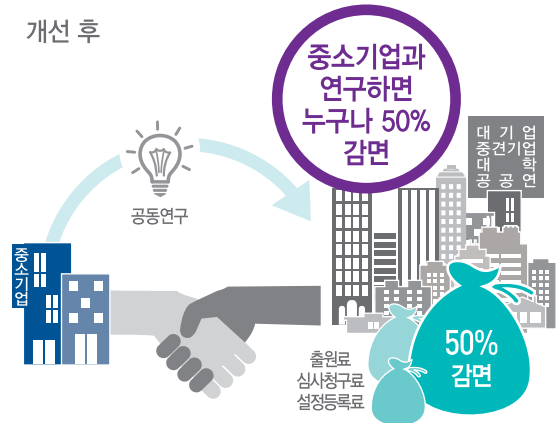
개선 내용

개선 전



- 중소기업과 다른 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만 감면
- 출원료·심사청구료 50% 감면

개선 후



- 대기업, 중견기업 외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공동연구도 감면 가능
- 출원료·심사청구료 외 설정등록료까지 50%감면

성과 및 기대효과

- 독자적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타 주체(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성장 기대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특허출원의 감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18) 119백만원 → ('19) 120백만원 → ('20) 135백만원 → ('21) 322백만원(추정)

수도권 소재 A대학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던 중소기업 B사는 기존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공동연구 주체가 기업이라는 이유로 출원료의 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감면 대상인 공동연구 주체가 대학 및 연구기관까지 확대되면서 '21년도부터는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방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정보관리과



특허 조사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해외의 특허 문헌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 중인데요,
특허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번역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이나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특허 문헌 번역 자료를 토대로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2020년 11월 개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AI 학습 등에 활용하면
특허 관련 문헌의 번역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민간 업체는 주요 언어(영·중·일·독 등)의 문헌 분석을 위해 고품질의 인공지능 기계번역이 필요하나,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학습데이터가 부족한 상황

개선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인공지능 전문 기업의 기계번역 및 학습데이터 구축 노하우를 전수받아 기계번역용 학습 데이터를 구축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자체 구축한 기계번역용 인공지능 학습데이터(158만건) 신규 개방

성과 및 기대효과

-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기업 또는 AI 전문기업의 기계번역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 소기업인 A 특허사무소에서는 의뢰받은 특허 조사·분석을 수행하던 중 외국의 특허문헌에 대한 번역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공지능 번역기의 품질이 좋지 않아 번역 전문 업체에 문헌 조사를 맡기려던 중, 특허청에서 특허 전문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개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A사는 특허청에서 배포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번역기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어 무사히 외국 문헌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글자체 디자인 도면 간소화로 출원의 편의성 증진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디자인심사정책과



글자꼴 개발을 위해서 글꼴 파일을 제작하는데
글꼴파일 작성 후 글자체 디자인 출원을 위한 도면을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부담이 됩니다.
해결방법이 없나요?

2020년 9월부터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별도로 도면을 작성할 필요없이
글꼴 파일 자체를 제출하면 됩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글자체 폰트파일 개발 후 디자인 출원시 별도의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 필요

* (글자체 디자인 정의)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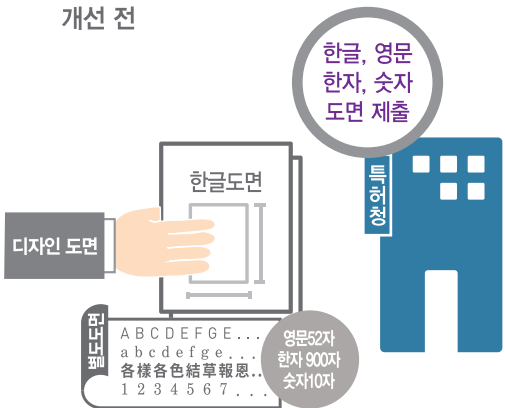
각각의 글자체 형식에 맞게 한글(500자), 영문자(52자), 한자(900자), 숫자(10자)를 한 벌의 도면으로서 오기 없이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 존재

관련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선 내용

개선 전



- 글자체 형식에 맞게 한글, 영문자, 한자, 숫자를 한 벌의 도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개선 후



- 별도 도면 없이 글꼴 파일 자체를 제출 가능

성과 및 기대효과

- 글꼴 파일 자체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출원의 편의성 제고

출원인 A는 자신이 개발한 한글 글자체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 글꼴 파일을 제작 한 후 이 파일을 바탕으로 하여 도면을 추가적으로 작성하던 중에 오기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모르고 출원하였다.

오기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던 중 특허청에서는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 할 필요없이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을 허용하도록 제출요건을 완화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글꼴 파일을 바로 제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2020 특허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15선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특허청
발행인	특허청장 김 용 래
기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http://www.kipo.go.kr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특허청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